모태신앙과 해묵은 신앙의 리셋

(시편 24:1~10)

1.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3.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4.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7.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모태신앙과 해묵은 신앙의 리셋>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모태신앙과 해묵은 신앙의 리셋'

요즘 '리셋(reset)'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이 모든 방면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하는데 새 정부의 포부입니다. 리셋은 본래 컴퓨터와 연관되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컴퓨터를 작동하다보면 프로그램 실행에 문제가 발생해서 먹통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커서가 움직여지지도 않고 다른 명령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럴 때는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을 클릭하면 먹통이 된 상태가 제거되고 컴퓨터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이게 리셋입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절대적인 지상명령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일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들과 해묵은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리셋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신앙의 리셋이 없으면 기껏 전도를 해놓고 교회 안에서 교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요즘 강릉에 찾아오시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십자가 복음 말씀을 듣다보니 기존의 다니던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앉아 있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전도해야 될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래서 신앙의 리셋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신앙의 리셋이 이루어지면 취직을 위한 스펙이라든지, 인생에 특별한 지혜를 얻기 위한 학식이라든지 인간관계 등이 없어도 됩니다. 신앙이 리셋 되면 전격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할 수 있고 삶 전체가 리셋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리셋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름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름 하나를 붙잡는 것에 달려있고 그 이름 하나를 어디로 붙잡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적절한 곳으로 단 하나의 올바른 이름을 붙잡으면 신앙이 리셋 될 뿐 아니라 삶 전체가 리셋 됩니다. 가족의 삶이 리셋 될 수 있고, 직장에서의 나의 생활이 리셋 될 수 있고 인생 전체가 리셋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전원을 끄지 않은 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손가락 한 번 까닥하면서 클릭 한 번 하면 되는 일입니다. 신앙의 리셋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셋의 과정은 결코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도 나타나는 파급효과는 대단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사건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기에 꼭 경험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생명력과 활력을 잃고 기독교적인 문화적 습관과 형식만 남아버린 모태신앙인들과 해묵은 신앙인들에게 생명력과 신선함이 되찾아지고 삶 전체가 리셋의 영향력 아래에 놓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법궤가 옮겨지는 대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하기 전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긴 뒤로 오랜 기간 동안 우여곡절을 거쳐 오벧에돔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성막을 짓고 법궤를 옮기는 일생일대의 대 경축사건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직접적 배경으로 하는 부분은 하반부의 7~10절까지이고 앞부분은 시편 15편에서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느낌이 듭니다.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답으로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은 6절의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10절까지는 오벧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을 그립니다. 8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라고 합니다. 앞뒤 구절에서 '영광의 왕'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니 문들아 열리라'는 것이고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라고 합니다.

오벧에돔의 집에서 출발해서 성막 안의 지성소까지 법궤가 옮겨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문들을 지나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에 도착합니다. 성막에 도착해도 우선 이방인의 뜰을 지나야 하고 이어서 유대인 여자들의 뜰을 통과하고 이어서 유대인 남자들의 뜰을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뜰이 있고 거기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서 성소의 문을 지나고 마지막으로 휘장을 지나서 법궤를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들아'라고 한 것은 아주 깊고 깊은 거룩한 장소에 법궤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문들이 열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통찰을 가지게 됩니다. 법궤가 오벧에돔의 집으로부터 여러 문들을 거쳐서 성막의 가장 깊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도 지성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오기까지의 과정이 바로 이와 같음을 신학적으로 통찰해 낸 것입니다.

법궤는 곧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성전과 성막을 두고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법궤가 성막 안의 지성소에 옮겨지는 것을 너무 기뻐한 나머지 문득 인간의 마음의 지성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곳임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의 의미를 1~6절에서 표현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마음에 지성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곳에 어떤 한 존재의 이름을 담게 됩니다.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크기만큼의 공백이 생깁니다. 이 마음의 공백은 무한한 폭풍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잡아끌어서 채우려고 과녁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 과녁이 바로 이름입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게 된 사람의 삶은 무한한 흡입력으로 돈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돈을 얻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과 말과 판단과 행동은 모두 마음의 지성소에 담은 이름의 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지성소는 궁극적으로 내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이 담기는 곳입니다. 그 이름이 담기면 실제로 그 존재를 가지기 위해 폭풍흡입력을 발동하게 됩니다. 자녀의 형통이라는 이름을 담았다면 실제로 자녀의 형통을 이루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폭풍흡입력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피아노연주가일 경우 거장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담으면 그 이미지나 이름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폭풍흡입력을 가지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는 모습이고 여기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나타납니다.

돈이라는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는 것은 돈이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기 때문에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는 것이고 믿게 되면

소망이 작동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들여놓은 돈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손에 쥠으로서 마음의 만족과 기쁨을 얻겠다는 소망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을 얻어서 마음을 채우는 사랑의 단계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세속적인 삶을 살든지 종교적 영역에서 살든지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주인’이 바로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오는 이름입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돈을 섬기다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문 3절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의 소유주이신데 누가 그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미물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6절에서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열망하는 자는 4절의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합니다. 옳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옳은 행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고 사는 자가 하나님과 합일(合一)되어 사는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지를 7~10절까지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법궤가 성막 안의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라는 이름을 담을 때에 우리는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나의 기쁨과 만족이 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돈을 담은 사람들은 돈이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믿고, 건강을 담은 사람들은 건강이 기쁨과 만족을 준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몸에 가시를 박은 채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과 만족이 건강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을 오해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들여놓음으로 인해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싶다는 열망을 소망으로 생각하고,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릴 수 있다고 믿는데 착각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돈을 밀어내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엄마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서 자녀를 밀어내

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의 지성소는 신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주리라 믿어지는 존재의 이름이 들어오는 자리이고 그 이름이 들어오면 소망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담은 사람은 천하에 좋다는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지성소에 모신 자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크기의 마음의 공백으로부터 발생하는 진공흡입력을 하늘을 향해 발동할 때에, 이 땅에서 손을 대서 하는 일들이 깨끗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기쁨이 되기 때문에 장사를 할 때에도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쁘고자 하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기를 때에도 자녀의 형통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교인숫자는 곧 헌금액수이고 교회건축을 위함입니다. 그러한 목사가 하는 목회는 손대는 곳마다 다 더러워지고 맙니다.

청결은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만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은 청결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지성소에 세상 것들을 들여놓고 소망하니 뜻이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상태에서 신앙을 리셋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폭풍흡입력으로 열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내 행동과 생각과 말이 다 바뀌게 되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듣고 알아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으로 배부르기가 쉽지 않다고들 하십니다. 그것은 밥을 충분히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쁘다고 밥을 한 수저만 먹고 뛰쳐나가면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다르게 세상 것들은 자연스럽게 마음에 담겨집니다. 아기 엄마가 아기를 마음의 지성소에 담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마음이 육체와 붙게 된 원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의 지성소에 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밥을 한 수저만 먹고 나가면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되 지속적으로 바라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배부르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봄이 끊어지는 순간에는 원죄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간 싸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을 때 내 마음을 살펴보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들어와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마음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계속해서 마음으로 바라 볼 수 있으면,

세상 것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마음의 흡입력은 온통 하늘을 향해서만 100%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7~10절까지의 노래를 통해서 법궤가 지성소에 안치되는 것처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자들은 6절과 같이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기쁨이고 만족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면 미물에 불과한 나도 천지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 합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고 믿음의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지성소에 어떤 존재의 이름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유혹적인 가치들의 이름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지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이름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길을 따라서 폭풍흡입력이 작동됩니다. 이러한 소망의 순간이 무르익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미물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실 것이고, 당신의 손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끊임없이 마음으로 바라보는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의 지성소에 모셔지게 하시고 폭풍흡입력이 하늘을 향하여 소망의 형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 하나님과 합일되는 감격을 24시간 맛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